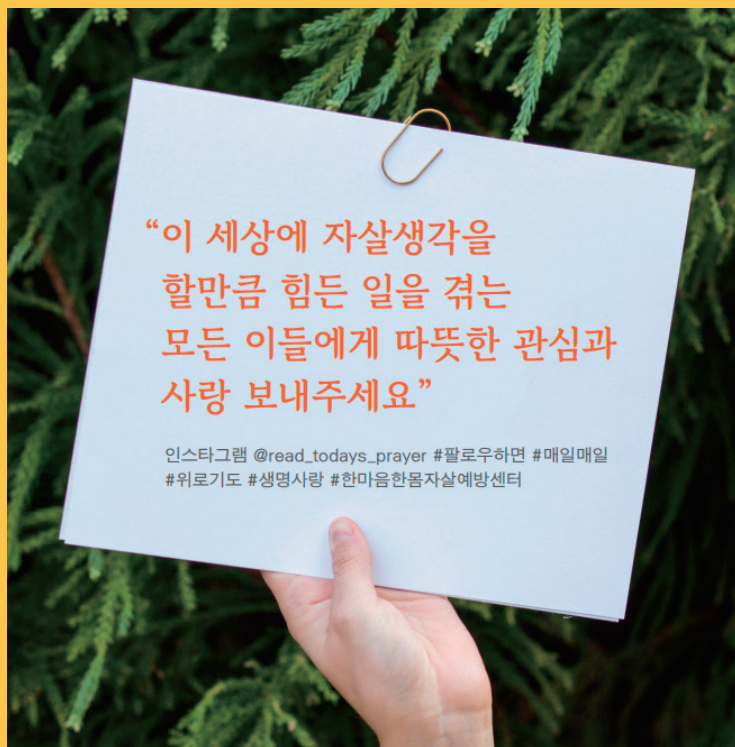




“이 세상에 자살생각을
 할만큼 힘든 일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read_todays_prayer #팔로우하면 #매일매일
 #위로기도 #생명사랑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

- 1 인스타그램 #마음을위로하는기도를 팔로우 해주세요.
- 2 익명의 신자들이 작성한 기도를 ‘좋아요’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 3 인스타그램에 따뜻한 기도가 가득해지는 그날을 꿈꾸며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인스타그램 @read_todays_prayer

We are
한마음한몸
 Family



김준희
 효주아네스



“자살을 예방한다고?”

송정섭 시몬 신부 (서울대교구 이문동 본당)

“자살을 예방한다고?” 처음 자살예방교육에 관하여 제안을 받았을 때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제가 된 후, 본당에 와서 ‘자살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를 가끔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이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일지, 어떤 마음일지 가늠이 되지 않아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단순히 ‘힘내세요’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이라는 현상을 한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살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힘들어.” 누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무슨 일 있니?”라고 물어보는 사람과, “네가 뭐가 힘들다 그래,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준비하며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물었던 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이란 매우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부른 생각과 선입견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그로 인해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아닌, 고통받는 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준비하는 시간은 곧 저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 삶의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 학생에게 물어보니,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이 삶의 이유라고 답하더군요.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이 역시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 삶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고 싶지만,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자살을 예방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그를 도와줄 착한 사마리아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도자를 위한 생명존중교육 워크숍 모습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지도자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을 이수하고, 동성고등학교 자살예방교육 일일교사가 된 송정섭 시몬 신부님이 직접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 후원하기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자살예방교육, 캠페인, 유가족 돌봄 활동에 지원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80-307979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의

02)774-3488

사람(human being)과 공동체(communitiy)의 가치

박진솔 아네스 국제협력팀 캄보디아 지원사업 담당

죌립쑤어!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크메르어입니다.) 저는 본부 국제협력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진솔 아네스입니다. 저와 부분부장 이정민 비오 신부님은 현지 직원 및 사업참여자들을 만나 후원자님들이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모아주신 기부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지난 7월 캄보디아 사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본부의 캄보디아 사업은 농부,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합니다.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된 가뭄으로 농산물 생산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삶도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는 전쟁과 분쟁의 역사 속에서 국토 전역에 매설된 대인지뢰 등으로 인하여 신체 장애인이 많습니다. 장애를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한 업으로 여기는 일부 사회문화적 배경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일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캄보디아의 농부 및 장애인과 함께하는 본부 사업의 열쇠(key)는 바로 '사람(human being)과 공동체(communitiy)의 가치'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내 가족이 있었기에, 이웃이 있었기에,



카리타스 캄보디아 마을농업공동체 농부들과 함께

공동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우리가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믿으며 함께하는 현지기관의 협력, 그리고 본부 후원자분들의 도움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회복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캄보디아 시골 마을의 사람들, 농부와 장애인은 가난하지만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였고 이를 저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일상에서 실현하고자 지구 건너편에 있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자님들께 이들의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길 희망합니다.

지구촌 빈곤 퇴치 후원하기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84-077777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월례미사 및 특강

10월의 금(金)모닝, 한마음한몸

신정훈 미카엘 신부



10월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이신 신정훈 미카엘 신부님께서 '실천하는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유익한 특강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어지는 월례미사에는 태아 축복식을 진행합니다. 축복을 원하시는 임신부께서는 사전 신청 시 말씀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일시 10. 25.(금) 특강 10:30~11:30 / 미사 11:40~12:30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신청방법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

또는 전화(02)774-3488)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